

## 未시판 품목 保護 對EC 협상

### 300件 범위내에서 마무리 될듯

물질특허와 관련한 미시판품목 보호에 대해 EC(유럽 공동체)와의 협상이 타결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를 놓고 日本과의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C와의 협상은 미시판품목 보호건수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거의 좁혀진 상태이며 日本과도 4월중 상공부장관의 訪日 때 미시판품목 보호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EC와의 미시판품목 보호는 3백건 정도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 3백건의 미시판품목에는 한국측이 제법특허를 물질특허로 전환하는 물질특허의 보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보정품목도 미시판품목에 포함시켜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C와의 협상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보호기간의 문제로 우리측은 8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을, EC측은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10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日本에 대한 미시판품목의 보호는 EC와의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EC의 기준에 준해서 日本에도 미시판품목을

인정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日本이 최근 외무부에 미시판품목 보호를 요청해 오면서 日本과의 협상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판품목은 韓國이 물질특

허 도입 이전, 즉 80년 1월 1일부터 87년 7월 1일 이전 해당국에서 물질특허를 받고 해당국과 韓國에서 아직 시판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물질특허와 같은 효과를 갖도록 행정조치로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 스 페 인

### 商標法 改正

스페인의 商標法이 改正되어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10일 議會를 통과하여 이번에 시행되게 되었는데 시행일 전에 있었던 出願은 현행법에 의해 처리된다.

그런데 주요 改正 내용은 최근 유럽공동체가 마련한 商標 초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改正에서 外國人

의 未登錄商號의 保護에 대하여 파리협약 第8條의 준용 여부를 그 상호의 보유자가 종전부터 스페인 국내에서 사용했던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만 保護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商標權의 존속기간은 원서의 제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올 5월 12일 전에 출원된 것은 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 된다.

## A I P P I

### 암스테르담 총회

세계지적 소유권 보호협회(AIPPI) 제34회 총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중에 개최되는 주

요회의 및 워크 샵 주제는 ▲ 소프트웨어의 보호 ▲ 종속특허와 그 이용개발 ▲ 합작투자자와 공업소유권 ▲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이유 등이다. (☎)